

대학 체육교육의 문제와 과제

강 신 복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과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서 언

체육학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교육현상으로서의 입장을 취해 왔다. 즉, 체육은 '신체의 교육' 또는 '신체를 통한 교육'의 전문성 입장에서 그 개념정의를 해왔다. 또한 체육은 '신체 활동의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성 입장에서 개념정의를 이루어져 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체육학 연구에서 신체활동 자체를 수단으로 한 인간의 전인적 발달 측면에 관심을 쏟아 왔고, 아울러 신체활동 자체를 다각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문적 지식체계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방이후 새로운 학문영역으로서 체육학이 도입되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체육학과가 설립된 이래 체육학의 독자적인 지식체계의 바탕에서 교육과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체육학과가 처음 설립된 이래 반세기 동안 체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교육 및 연구의 양상도 크게 변모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변천양상을 살펴보고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2. 대학 체육교육의 현황과 문제

1) 체육계열학과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해방 직후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체육학과가 처음 설치된 것을 출발로 1946년에 설치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와 1950년대에 접어들어 조선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사범대학, 수도여자사범대학, 광주사범대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서라벌 예술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설립된 체육학과는 체육지도자 양성에 활기를 북돋게 하였다. 특히 54년에는 경희대학교에 체육대학이 설립되어 체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이 탄생하게 되었고, 53년에는 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한유도대학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체육학과가 체육대학으로 승격되고 충남대, 동아대, 한양대, 숙명여대에 체육학과가 설립되어 체육지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70년대에는 체육 및 스포츠의 과학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 체

육계열학과를 서둘러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체육관련 연구소도 각 대학에서 함께 설립하였다. 아울러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체육관련 전문인력 수요의 급작스런 증가로 체육관련 학과가 각 대학에 더 많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94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에 설치된 체육계열학과는 80여 개가 넘으며 94년도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2,770여 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2년제 전문대학 체육계열학과의 입학정원까지 고려한다면 그 학생수는 총 3,000여 명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학생수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와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열학과 학생배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 성장은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학생배출의 질관리 측면에서 실패하고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육계열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특히 각 대학 체육과 입학생의 상당수가 기본학력이 낮은 체육특기자로 우선 충원되고 있는 현 대학 학생선발의 관행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95학년도 대입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81개 대학 중 61개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200점 만점) 성적 40점을 최저 학력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은 대학별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진 것이긴 하나 교육부는 “상당수 대학의 체육특기자 학력기준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교육법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국일보』, 94. 5. 22).

둘째, 체육프로그램의 파행적 운영에 의한 수업결손의 문제이다. 빈번한 학교행사에 따른 휴강 또는 학교대항 시합이나 기타 각종 대회에의 잦은 출전과 연습시간의 과다로 정과수업을 결손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오늘날 체육과 학생들의 학창생활의 일면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체육과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분위기와 풍토가 여타 학문 분야에 비하여 학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강의실이나 도서관 등에서의 학습분위기가 산만하고 학습의욕이 저조하여 학습성취도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현상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만 하는 체육과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전임교수 확보율의 저조

강의의 효과성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은 해당학과의 전임교수 확보율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93학년도 체육계열학과의 전임교수 정원은 1,430명인데, 임용된 현재원은 629명에 불과하다. 학과의 입학증원 허가를 받기 위한 최저 교수확보율은 61%로서 전임교수 수는 873명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수 수는 정원의 약 44%로 최저 교수확보율 61%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체육과의 전임교수확보율은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서 현저히 낮은 편이다. 학생정원은 국공립대학보다 오히려 사립대학이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임교수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하여 일부 대학의 경우는 전임교수 1~2명에 강사 여러 명이 채용되어 전공과목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현상을 엿볼 수 있다.

3) 학과명 혼용에 따른 프로그램 방향의 혼돈

초창기 체육과가 대학에 설립될 당시부터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주로 관심을 쏟아온 까닭에 학과 명칭은 전문성 입장에서 ‘체육교육과’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학문적 입장에서 ‘체육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도 많았다. 아울러 엘리트 선수를 지도 감독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경기지도과’가 설립

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사회체육 또는 생활체육의 붐을 타고 여러 대학에서 '사회체육과' 또는 '생활체육과'라는 명칭으로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육관련 학과는 졸업생의 진로와 부합하여 지도자 양성 목적의 기본취지에서 명칭을 서로 달리 부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과명칭 부여의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서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학과명칭만 다를 뿐 교과목명이나 교육과정 내용 등 모두가 매우 유사하다.

한 학과의 학과 명칭이 합리적으로 부여되기 위해서는 해당학문의 지식체계 측면에서 그 분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학과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 체육관련학과의 명칭은 이러한 기본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원칙없이 학과명이 남발되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난맥상

체육관련학과의 명칭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해당학과 졸업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 왔다. 체육관련학과의 학과명칭이 어떻든 간에 체육학 학문영역의 분류는 체육학 지식체계의 특성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체육의 현상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탐색할 수 있는데, 탐구되어야 할 하위 학문영역으로서 다음 영역을 들 수 있다. 즉, 체육철학, 체육사,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체육행정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역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부 학문영역은 그 특성상 여러 개의 교과목으로 나뉘어 개설된다.

현행 각 대학의 체육관련학과의 교육과정도 위에서 구분 제시한 기본 틀의 바탕에서 교과목들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들간에 해당과목의 지도내용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각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각 세부 과목들이 과

목명은 같으나 실제로 편성되어 지도하는 강의내용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각 과목에서 다루야 할 내용과 접근방법은 해당과목의 축적된 기본이론과 모형의 바탕 위에서 편성되어야 하고 국내외의 최근 이론과 연구동향이 아울러 포함되어 내용구성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도 이러한 노력은 소홀한 실정이다. 각 과목 담당교수들간의 지도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교환이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그 해결책을 못 찾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각 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전공과목 중 이론 과목과 실기 과목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론과목 대 실기과목의 비율을 5:5, 6:4 또는 4:6 등으로 서로 달리 정하고 있다.

셋째, 이론과목 중 교과목의 내용구성에서 그 내용의 성격이 순수이론 중심이나 아니면 실천이론 중심이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국내외의 학문동향과 결부시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부응하여 재편하고 있는가도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이론교과목에 대한 내용구성의 기본 방향에서 각 대학간 어떠한 합의점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상호의견교환의 노력도 미흡하다.

넷째, 체육관련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실기과목들은 종목과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큰 애로를 겪는다. 실제로 체육전공 실기과목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각 유형과 특성별로 핵심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개설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간 프로그램의 형태와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교과목의 유형과 내용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학과에서 전임교수 수가 적을 경우 대부분의 실기과목은 외부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제한점 때문에 실기과목을 참여자의 요구와 흥미 그리고 해당학과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하고 참신하게 개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의 질관리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체육학관련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 면에서 필수냐 선택이냐에 대한 준거가 불명확하다. 많은 대학에서는 전공과목에 대한 필수/선택의 구분이 학문의 지식체계나 중요도 측면에서 구분하여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된 인식이나 편의주의에 의해, 그리고 심지어는 강의를 담당하는 해당학과의 인물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고,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개편과정도 없이 오랫동안 그대로 이수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5) 체육 시설 및 연구여건의 열악

어느 학문분야든 간에 교육과 연구의 질을 유지하고 이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시설, 재정 또는 정책과 같은 여건이 합리화되어야 한다.

체육계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 대학의 시설 확보율은 양적 및 질적 측면 모두 열악하다. 체육 시설은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 코트, 기타 실내외의 크고 작은 시설물들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운동장과 체육관이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체육관 하나 없이 수십 년 동안 전공실기수업(이틀테면 체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운동장을 확보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잔디구장(또는 인조잔디구장)이나 타탄 트랙으로 설비된 운동장이 구비된 대학은 극히 드문 편이다.

체육관도 규모와 설비수준면에서 질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내수영장이 있는 대학은 극히 드물고 옥외수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낡았거나 물공급이 원활치 못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평생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테니스의 코트도 대부분 옥외시설이어서 계절과 일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활용률 역시 낮은 편이다.

기타 실내 스포츠 종목인 라켓볼(또는 스쿼시와 핸드볼), 사격 등은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많은 학생들이 책이나 설명을 통해서만 이해할 뿐 실습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옥외에서 실시되는 스키, 조정, 요트, 윈드서핑, 행글라

이딩과 같은 특수 스포츠 종목들은 운동참여경비가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참여토록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애로가 크다.

대학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요구되는 또다른 환경적 여건은 실험실습실과 여기서 필요로 하는 실험 및 연구 기자재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대학 체육계열학과와 실험실습실과 기자재 확보현황은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 대학 체육 실험실습실의 상황을 한 사례로 살펴보자.

B 대학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으로서 체육과 설립이 꽤 오래되어 비교적 역사가 긴 대학이다. 그러나 체육과의 체육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체육관 하나 없고 실내수영장 또한 없다. 체육과가 있는 건물은 낡아서 강의실은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유리창은 몇 장 깨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컴컴한 강의실 앞 복도를 지나 맨 가장자리 구석방에 '체육생리실험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 이 방은 체육기구실로 쓰이다가 몇해 전 실험실로 사용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서너 평 남짓한 이 실험실에 들어서니 낡은 모형인 286 XT 컴퓨터 한 대가 눈에 띄고 직사각형 긴 테이블 위에 먼지 쌓인 한 두 개의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실습기자재가 놓여 있다. 실습실 담당 조교의 설명을 빌면 이 생리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 실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다. 운동생리 수업시간에 학습하는 내용은 실제로 실습할 만한 기자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란단다. 운동생리 담당교수의 말을 빌리면 매학기 학교당국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요청을 해도 예산부족 핑계로 반려된다는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1945년 해방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체육학과가 처음 설립된 이래 꼭 반세기가 지난 지금 8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체육관련학과를 설치하여 연간 3,000여 명의 체육학전공 학부졸업생을

배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체육학 전문 인력의 배출은 양적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에서는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학 체육교육이 질적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질관리에 직결되는 몇 가지 상황변인이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무계획적인 학과증설과 학생증원으로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팽창만을 거듭해 왔다.

둘째, 체육학과의 특성상 하위 세부 전공영역별로 전임교수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각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여타 전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셋째, 체육계열학과간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일관된 방향없이 운영해 오고 있어 혼돈을 겪고 있다.

넷째, 대학 체육교육의 환경적 요인인 시설과 연구여건의 열악성으로 프로그램의 질관리가 미흡하다.

이상 논의된 대학 체육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설립인가된 대학 체육계열학과의 유사학과들을 체육학의 지식체계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통합하고 학과명도 이에 부응하여 개명해야 한다. 특히 사회체육과와 생활체육과의 신설인가를 억제하고 이미 각 대학에 설립된 이들 학과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운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체육학과, 체육교육과, 경기지도과, 사회체육과, 생활체육과 등 학과명은 서로 다르지만 실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은 서로 매우 유사하다. 사회체육과와 생활체육과의 학과명을 여가학과 또는 레크리에이션학으로 개칭하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방향도 이에 부응하여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체육학 하위 전공영역별 세부 교과목명과 내용체계 및 교육과정의 운영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별 전문가들간의 상호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 채널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이수모형 등을 상호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 현재 체육계열학과에서 배출되고 있는 전문인력의 양산체제를 지양하여 인력 수급계획의 바탕에서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의 전공 체육교육 과정은 학문성과 전문성 트랙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내용구성도 합리화 하여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과 학위 및 자격수여는 능력위주 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능력위주 교육이란 체육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의 절대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이수토록 하며 아울러 학위와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체육계열학과 입학생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우수 학생들이 다수 입학할 수 있도록 유인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점수의 최저 학력기준을 상향조정하여(현재 200점 만점에 40점) 기본학력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체육교육 및 연구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2000년대의 미래사회는 고급연구인력 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연구인력의 양성이 질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고급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① 각 대학 체육관련학과의 교수확보율을 높이고, 전문분야별로 균형있게 확보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을 체육과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② 체육 전공수업의 결손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대표선수들의 수업결손을 억제하기 위해 연중 시합 횟수를 제한

한다거나 방학기간에 출전토록 하고, 부득이 학기 중에 시험을 가질 경우에는 주말에 경기를 개최토록 기본 방침을 세워야 한다.

③ 각 대학에서 체육시설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학교의 기자재 보유 기준량을 설정하여 실험실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자재 및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접대학간 기자재 공동사용 방안이나 관련분야와의 연계체제를 통한 시설, 기자재의 공동구입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학문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교수의 연구장

려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문을 주도해 나가는 대학교수가 본래의 목적인 연구 및 강의를 소홀히 하고 행정업무처리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인어서 연구시간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강신복/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 체육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체육대학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체육교육과정이론』, 『체육수업탐구』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대학 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외 다수가 있다.